

RDA 도입에 대한 사서의 인식 연구*

- 대학도서관 사서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University Librarians on RDA Adoption: Focusing on Interviews with University Librarians

이 성 숙 (Sung-Sook Lee)**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RDA 도입 현황과 RDA 도입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도서관 중 RDA를 도입한 2개 도서관의 도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사서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였고, RDA 도입 관련 서술형 답변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면담 조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RDA에 대해, RDA의 개념은 매우 어렵고 추상적이며, RDA를 적용한 구현 사례가 적고, 단위도서관의 인력과 예산 여건상 RDA 도입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RDA 도입 방안은 RDA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RDA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RDA 도입을 위한 하이브리드 서지레코드 구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RDA 시범 기관 운영이 바람직하고, 성과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구현을 위해 업체와 조율이 필요하고, 일괄 소급 변환보다는 특정 시점 변경이 바람직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RDA 관련 온라인 채널을 마련하고, 국가전자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국가적 예산 및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대학도서관 RDA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RDA adoption in Korea and the perception of university librarians on RDA adoption. For this purpose, the adoption status of two libraries that adopted RDA among domestic libraries was analyzed. In addi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university librarians, and narrative responses related to the adoption of RD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interview survey, the research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the concept of RDA is very difficult and abstract, there are few implementation cases where RDA is applied, and tha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adopt RDA due to the personnel and budget conditions of the local library. The RDA adoption method recognized by the research participants is to improve RDA awareness, conduct RDA education, prepare guidelines for constructing hybrid bibliographic records when RDA is adopted, operate an RDA pilot institution, and establish a performance model. In addition, research participants need coordination with companies for implementation, prefer to change a specific point in time rather than batch retroactive conversion, discover success stories, establish RDA-related online channels, build and utilize national authority DB, and use the national budget and system support.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 plan to adopt RDA for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was presented.

키워드: 자원의 기술과 접근, RDA의 도입, RDA의 사서 인식, 목록규칙, 대학도서관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RDA, Adoption of RDA, Librarian Recognition in RDA, Cataloging Rules, University Library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nfolee@cnu.ac.kr)

논문접수일자 : 2022년 8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9월 5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239-265,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3.239>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목록규칙은 통일되고 일관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성문화된 지침이며, 성문화된 목록규칙의 역사는 Panizzi의 목록규칙이 발표된 18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목록규칙에 기초하여 작성된 목록은 정보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그러나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단지 1%만이 도서관 웹사이트를 정보 탐색 시작점으로 이용한다(OCLC, 2005)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환경의 변화로 목록은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현재의 도서관 서지 제어 방식은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고, 전통적인 도서관은 자료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접근 도구를 제공해 왔는데 목록은 그 중 도서관 소장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도서관 목록은 이미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조재인, 2009).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서관계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목록규칙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AACR2는 FRBR과 FRAD 개념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로 2010년 전면 개정되었다. 또한, 링크드 데이터 개념과 FRBR의 LRM(Library reference model)을 수용하기 위해 3R 프로젝트(RDA toolkit restructure and redesign)가 진행되었고, 2019년 개정된 RDA 베타 버전이 공개되었다(이미화, 2019). 이 RDA 베타 버전

은 2020년 RDA 공식 버전이 되었다. RDA는 AACR2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계층적인 개체를 정의하여 관계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자원의 편목을 고려하고, 기록관과 박물관 등과의 호환성을 강조하고, 웹에 목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RDA가 발표된 이후 미국은 주요 도서관이 참여하여 RDA 테스트 과정을 거쳤고, LC는 2013년 RDA를 도입하였다. 또한, 영국, 독일 외 주요 유럽국가와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주요 도서관도 RDA를 도입하였다. 또한, RDA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도서관도 RDA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RDA 교육과 테스트, 구현 전에 RDA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에서 RDA를 도입할 때 사서들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성숙, 2022). 이런 상황 가운데 RDA 서지레코드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지 유틸리티를 통한 서양서 반입 시 RDA 기반 서지레코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도서관 중 서양서 편목에 RDA를 도입한 도서관은 2곳이며, 그중 한 도서관은 부분 도입한 상황이다. 국내 도서관은 RDA 최종본 이전 버전에 대한 번역본을 발표하였고, 사서직 교육훈련에서 RDA를 일부 소개하였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는 RDA를 기반으로 KCR4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RDA로 작성된 서지레코드는 계속 늘어나고 AACR2와 RDA 서지레코드가 공존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는 RDA에 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며, RDA 기반 서지레코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RDA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도 소수이다(이성숙, 2022).

RDA 국내 도입과 인식 관련 연구로는 RDA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도입 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이미화, 2010; 2011a; 2013; 2014; 2018; 2019)이 있다. 특히 RDA 인식에 관한 연구로는 목록전문가의 인식을 바탕으로 RDA 기반 KCR4의 개정 방안을 제시한 연구(김정현, 2013), RDA 자원유형의 KCR4 적용 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미화, 2011b), 교수자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한 교육모형 연구(백지원, 2016), 자원유형 디스플레이 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미화, 2017),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RDA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성숙, 2022)가 있다. 그러나 국내 도서관 RDA 도입의 구체적인 과정과 RDA 도입에 대한 국내 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도서관의 RDA 도입 현황과 RDA 도입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에 관해 면담을 통해 고찰하고, RDA 도입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문제는 국내 도서관의 RDA 도입 현황과 과정은 어떠한가,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편목 업무의 변화와 RDA에 관한 인식, RDA 도입의 장애 요인, RDA의 도입 방안은 어떠한가이다. 이를 위해 RDA를 도입한 A, B 도서관을 대상으로 RDA 도입 현황과 과정을 조사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RDA 도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RDA 도입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이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관의 RDA 도입 현황 조사와 RDA 도입 인식에 관한 면담 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우선 국내 도서관 RDA 도입 현황과 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RDA를 도입한 A 도서관과 B 도서관에 현황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고, 2곳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황 조사의 주요 내용은 ① RDA 도입 시기와 준비과정, 이유, ② 도입에 따른 변화, ③ 도입의 어려움과 도전이다.

또한, RDA의 도입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 고찰과 함께 지원 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연구목적에 부합한 목적적 표집 방법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KERIS 종합목록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27개 대학도서관에 면담 참가를 요청하였고, <표 1>과 같이 총 8명이 모집되었다. 종합목록 운영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집단을 대표할 만한 일반적인 속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8명이 모든 도서관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국내 도서관의 RDA 도입에 대한 의견을 보편적으로 도출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면담은 전화 면담과 이메일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Park & Yuji, 2015), 이메일 면담 방식은 연구참가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답장할 수 있으므로 더 나은 응답률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활한 면담을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였다. 면담 문항 개발은 국내외 RDA 관련 연구를 종합 분석하고, RDA 도입과 관련된 면담 혹은 설문 문항들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문항은 ① 서양서 편목 업무

〈표 1〉 연구참여자의 구성 및 면담 일정

번호	성별	연령대	근무/정리업무경력(년)	형식	날짜	소요시간
1	여	50	28/28	전화 면담	2022. 5. 18. 11:25-11:55	30분
2	여	50	26/9	전화 면담	2022. 5. 19. 16:45-16:15	30분
3	남	30	6/5	전화 면담	2022. 5. 23. 20:30-21:15	45분
4	여	40	5/5	전화 면담	2022. 5. 25. 13:30-14:10	40분
5	여	50	34/23	이메일 면담	--	--
6	여	50	32/10	이메일 면담	--	--
7	여	60	36/7	이메일 면담	--	--
8	남	60	35/20	전화면담	2022. 7. 20. 10:30-11:35	65분

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② RDA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③ RDA 도입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④ RDA 도입 방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이다.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고 전사되었다. 전사 후, 전사본을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확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연구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조사 방법 및 분석과 관련한 글쓰기 과정에서 심층적 기술과 주관적 반성을 통해 연구 진행 과정과 연구자의 주관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한 서술로 연구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는 개방형 코딩을 적용하여 개념들을 명명하고 유사한 내용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RDA의 특징과 하이브리드 서지레코드

AACR2는 1978년 발간되었고, 1988년, 1998

년, 2002년 개정되었다. 그러나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IFLA와 영미목록계는 전통적인 서지 제어 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JSC(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는 1997년 개척된 AACR의 원칙과 미래의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AACR의 미래방향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표준안에 대한 개정 작업을 2004년부터 시작하였다. 2005년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합의되었고, 'RDA: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제목을 채택하기로 결정되었고, RDA의 전체 초안은 2008년 발행되었다. RDA 운영위원회(RDA Steering Committee(이전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는 2009년 전체 초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였고, 2010년 RDA 툴킷을 발행하였다(RDA Steering Committee, 2022).

RDA 운영위원회는 링크드 데이터 개념과 FRBR의 LRM(Library Reference Model)을 수용하기 위해 3R 프로젝트(RDA toolkit restructure and redesign)를 진행하였고, 2019년 개정된 RDA 베타 버전을 공개하였다. 개정 RDA는 이용자 중심의 링크드 데이터 적용을 위해 국제적인 모델에 바탕을 두어 개발되었으므로 데이터

저장, 검색, 디스플레이에서 효과성과 융통성을 가진다(이미화, 2019). 이 RDA 베타 버전은 2020년 RDA 공식 버전이 되었다.

RDA의 특징을 살펴보면, RDA 구조는 FRBR과 FRAD를 반영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 자료, 개인, 가족, 단체 등의 개체와 속성,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층적인 개체와 관계 기술을 통해 저작을 중심으로 한 집중이 가능하고, 개체 간의 연관 정보 표현이 수월하다. 또한, RDA는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매체로 재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형과 구현형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와 캐리어의 개념을 강조하였고, 기존 GMD와 SMD를 조정하고 개편하여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으로 재정의하였다. 또한, RDA는 기본표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개념을 유지한다. 또한, RDA는 기록관, 박물관 등 문화유산 기관과의 제휴를 핵심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자원 메타데이터의 생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RDA는 이용자 중심의 링크드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 모델에 따라 구성되어 웹상에 목록 정보를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조재인, 2009; 김정현, 2017).

RDA가 발표된 이후 미국은 주요 도서관이 참여하여 RDA 테스트 과정을 거쳤고, LC는 2013년 3월 RDA를 도입하였다. 미국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RDA를 도입하였다. 또한, 유럽의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의 국립도서관은 RDA 도입을 완료하였고,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부분 도입을 완료하였다.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은 RDA 도입을 시작하였고, 덴마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는 RDA 도입을 결정하였다(Ducheva & Pennington, 2019). 또한, RDA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도서관들도 RDA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도서관이 RDA를 도입함에 따라 AACR2와 RDA 서지레코드의 효율적인 생성과 관리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LC와 PCC(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는 AACR2 레코드에 RDA의 핵심 요소를 추가한 하이브리드 레코드의 생성을 제안하였다. 하이브리드 서지레코드는 RDA 이전의 목록규칙으로 생성된 서지레코드에 수작업이나 기계적인 처리를 통해 RDA 요소를 추가 한 레코드를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레코드는 엄밀한 의미에서 RDA 레코드는 아니지만, 최종 이용자가 서지레코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이미화, 2015).

2.2 선행연구

이 절에서는 RDA 도입 및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RDA 테스트 조정위원회는 미국의 국립도서관과 테스트 참여 도서관이 RDA를 사용한 결과를 참여 기관의 요구사항, 레코드 생성, 레코드사용, 필요한 훈련, RDA 툴킷 사용, RDA 내용, 시스템, 비용 이점 측면에서 논의하였다(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Cronin(2011)은 목록 사서가 내용유형,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과 같은 새로운 RDA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면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개체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RDA

를 선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Welsh와 Carty, Williams(2012)는 영국의 대다수 정리 사서와 관리자가 RDA에 익숙해지는 데 방해 요인은 RDA 툴킷에 대한 액세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Mansor와 Ramdzan(2014)은 목록 업무의 변화를 감자기 시도하면 저항과 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RDA 사용에 대한 정리 사서의 교육은 RDA 도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하고, RDA에 많은 FRBR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교육자는 정리 사서가 FRBR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Atilgan과 Ozel, Chakmak(2015)는 터키 도서관 사서의 RDA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RDA 어휘와 요소 집합,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전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자 중 48.7%가 RDA 구현 과정이 그들의 업무에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Haliru와 Sokari, Bello(2016)는 정리 사서들이 RDA에 익숙해짐에 따라, RD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Aboyade와 Eluwole(2018)는 나이지리아 사서의 RDA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 사서들이 RDA의 시행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열정적이지만, 예산 문제, ICT 환경 미비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예산과 인력지원을 언급하였다. Ducheva와 Pennington(2019)은 유럽 전역의 RDA 적용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12개 유럽 국립도서관 사서와 면담한 결과, 북미 도서관보다 RDA가 가진 상호운용성과 문화유산 분야의와의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럽국가 중 RDA 도

입 완료 국가, 도입 시작 국가, 도입 결정 국가, 관심 국가를 조사하였다.

RDA 도입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로는 먼저 이미화(2010; 2011a; 2013; 2014; 2018; 2019)의 연구가 있다. 이미화(2010)는 MARC 데이터의 RDA 저작 및 표현형 요소 분석을 통해 KCR 및 KORMARC의 고려사항을, 2011(a)년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 변화에 따른 KCR4의 고려사항을, 2013년 ISBD 및 RDA 내용유형 및 매체유형 기술 테스트를 통한 KCR4의 고려사항을, 2014년 미국 대학도서관의 RDA 적용 비교를 통한 고려사항을, 2016년 RDA 자원유형 디스플레이를 위한 고려사항을, 2018년 집합물의 FRBR 구현 방안을, 2019년 개정 RDA 특징을 분석하고 과제를 논의하였다.

한편 RDA 인식에 관련된 연구로는 김정현(2013), 이미화(2011b; 2017), 백지원(2016), 이성숙(2022)의 연구가 있다. 김정현(2013)은 목록전문가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미화(2011b)는 자원유형 기술 현황과 문제점, 이해정도를 조사하고 자원유형의 KCR4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미화(2017)는 학부생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목록에서 효율적인 RDA 자원유형 디스플레이 방안을 제안하였다. 백지원(2016)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견과 요구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에 관한 단계별 적용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성숙(2022)은 설문 조사를 통해 대학도서관 사서의 RDA에 대한 인지 여부와 감정, 친숙도, 이해, 도입, 장애 요인, 교육에 관한 인식 수준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볼 때,

RDA는 국제적인 목록규칙 표준 발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RDA의 도서관 도입 시 사서들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각국은 RDA 도입을 위한 연구와 사서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도서관도 국내의 목록 상황에 기반해서 현실적인 RDA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RDA 도입에 관한 도서관 사서의 인식 연구가 필요하다.

3. 국내 도서관 RDA 도입 현황과 과정

3.1 RDA 도입 시기와 준비과정, 이유

RDA 도입 시기와 준비과정,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A 도서관과 B 도서관 모두 RDA를 도입하기 전에 서양서 목록규칙으로 AACR2를 사용하였고, 2015년 RDA 도입을 결정하였다. A 도서관은 국내서, 일본서, 중국서 이외의 국외 자료(도서 자료)에 적용하고 있고, B 도서관은 일본서, 중국서를 포함한 국외 자료에 부분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RDA 도입을 위해

준비한 사항을 살펴보면, A 도서관은 RDA 도입을 위해 RDA 관련 연구용역, 번역, 심포지엄,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B 도서관은 담당 팀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RDA 규칙을 번역·분석한 후 목록 기본서식을 정해서 실무에 적용하였다. 준비과정 중 RDA 번역과 관련하여, A 도서관은 개념과 용어의 생소함, 적절한 한글 용어 선택이 어려웠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완전한 번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 도서관도 전체를 알아야 놓치는 부분이 없으므로 완전한 번역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RDA를 도입한 이유로 A 도서관은 AACR2에 이어 새로운 국제도서관목록규칙의 표준으로 RDA가 발표되어, 자료의 활용과 공유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B 도서관은 당시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이셨던 관장님의 주도하에 도입하였다.

3.2 도입에 따른 변화

RDA 도입 후 변경된 주요 목록 세부 규칙의 예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A 도서관과 B 도서관 모두 변경된 조항은 100, 700 필드 등에 역할어 기술,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표제 전

<표 2> 변경된 세부 규칙

목록 세부 규칙	A 도서관	B 도서관
책임표시: 2.4.1.4 책임표시 기록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책임표시를 전사한다(RDA 1.7 참조).	변경함	변경하지 않음
책임표시 4인 이상: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책임표시를 전사한다(RDA 1.7 참조).	변경함	변경하지 않음
역할어 기입: 100, 700 필드등 ▼e역할어 기입 여부	변경함	변경함
표제: 2.3.1.4 표제 기록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표제를 전사한다(RDA 1.7 참조).	변경함	변경함
336, 337, 338 필드 기술	변경함	변경함

사, 336, 337, 338 필드 기술이며, A 도서관에 서만 변경된 규칙은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책임표시를 전사(예: by Dr. Johnson), 책임표시 4인 이상의 경우 정보원에 나타난 모든 책임표시를 전사하는 것이다.

3.3 도입의 어려움과 도전

RDA를 도입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A 도서관은 RDA를 적용하는 기관이 없고, 번역 자료 및 표준안 등 기본 기반이 부족한 점, 국내 도서관마다 시스템과 인력, 예산 등이 다르고 수집하는 자료 유형도 다양하여 RDA를 도서관에서 바로 수용하고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 서양서 자료에 국한하여 RDA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B 도서관의 경우, 담당 직원들의 반대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로 업무시간은 더 길어졌지만, 이용자들에게 특별히 혜택이 가는 것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RDA는 태생부터가 한국어 아닌 외국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개념이나 용어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RDA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에 대해, A 도서관은 현재 서양서에만 RDA를 적용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점은 없다. 다만 KCR도 RDA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어서, 자료 정리 업무 시 입력 요소가 많아지고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RDA 기준으로는 데이터 품질이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기존에 기본표목이 없었던 A 도서관 서지에 저작, 표현형 등의 서지 구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위험 요인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B 도서관은 한국에서 실제 사용하는 도서관이 거

의 없다는 것을 우려되는 점으로 언급하였다.

RDA 도입 전후 다른 기관과의 협업과 관련하여, A 도서관은 RDA 툴킷 구매 및 사용, 심포지엄 개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학계와 협업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목록 작성을 위한 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B 도서관은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향후 RDA 도입 예정인 다른 도서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A 도서관은 교육이나 데이터 측면에서의 지원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도서관 홈페이지와 국가자료목록에서 서양서에 대한 RDA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서양서 구입 자료 정리 데이터를 RISS에 전송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향후 RDA 구현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RDA 작성 지침, 데이터 작성 사례, RDA 관련 연구 및 동향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B 도서관은 조언 정도는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RDA 도입이 목록 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으로, A 도서관은 목록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발간되는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점이 확대되고, 자원에 표현된 그대로 기술하여 서지정보를 접하는 이용자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디지털 시대에 생성되는 자료들의 특성과 검색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제공한다고 언급하였다. B 도서관은 인쇄자료 이외의 자료 정리에 대해 고심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RDA의 미래와 관련하여, A 도서관은 RDA 개정이 계속되고, 사용하거나 사용을 검토 중인 나라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RDA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B 도서관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일 것 같다

고 언급하였다. RDA가 국제 목록 공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A 도서관은 영미권뿐만 아니라 유럽 도서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국제 목록 공유에 계속 영향을 주고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B 도서관은 LC와 OCLC의 최근 데이터에 RDA를 적용한 데이터가 많은 것으로 보아 RDA 도입은 국제 목록 공유에 한층 다가서는 방법인 듯하다고 언급하였다.

목록에서 FRBR 적용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A 도서관은 이용자 과업을 생각할 때 저작 중심의 목록 집중은 중요하며, 동일 저작의 다양한 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저작 중심의 목록이 궁극적으로 사서와 이용자 둘 다를 위한 대안이 되지만, 지금 당장 FRBR 적용을 목록 작성 과정에서 반영할지, 검색 결과 디스플레이에서 반영할지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라지며, 국가마다 FRBR에 대한 적용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 외국 자료의 한글 번역서가 많아서, 원서명에 기반하여 목록을 집중시키면 이용자는 이질적인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언급하였다. B 도서관은 MARC에서도 MARC 이후의 환경에서도 앞으로 이용자 지향의 목록은 관계성이 중요하기에 FRBR 적용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4. RDA 도입에 관한 사서와의 면담 결과

RDA 도입에 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과 의견을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4.1 서양서 편목 업무의 변화

4.1.1 RDA 도입 전이지만 반입 받을 때 RDA 관련 필드 유지

연구참여자들은 336과 337, 338이 존재하는 서지레코드를 자주 봐서 익숙하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RDA 도입 전이지만, 서양서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반입 받을 때 336과 337, 338 필드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검색할 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둔다는 의견도 있었고, 삭제하는 것이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양서 목록 규칙은 AACR2이지만 서양 자료를 반입 받을 때 RDA를 적용한 필드가 있으면 삭제하지 않고 있어요. (6번 연구참여자)

하이브리드 레코드는 좀 많이 봤어요. 반입 받을 때 336, 337, 338 등이 검색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있어 살펴보고 있어요. (2번 연구참여자)

OCLC 데이터를 보거나 OCLC 데이터를 반입한 Unicat에서도 많이 봤어요. 익숙하긴 해요... 사실은 삭제하는 게 더 업무가 가중되잖아요. ... Unica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필수 필드들이 있어서 필수 태그들이 없으면 좀 문제가 되지만, 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특별히 삭제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Unicat의 OCLC 참조데이터에는 RDA의 해당 필드가 존재하지만, 신규데이터 생성의 경우 336, 337, 338 태그는 지원하지 않는 태그라고 에러가 뜨기 때문에, 해당 필드가 있는 경우는 그대로 두지만, 신규데이터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 필드들을 생성·유지해서 반입하지 않아요. (4번 연구참여자)

〈표 3〉 키워드 추출 과정 요약

상위주제	하위주제
서양서 편목 업무의 변화	RDA 도입 전이지만 반입 받을 때 RDA 관련 필드 유지
	서지 유틸리티 사용 비용 부담
	반입 받을 양질의 레코드 부족
	검색엔진과 비교해 목록은 효용성이 떨어지고, 편목 업무의 비중 축소
	인쇄자료가 있는 한 편목 업무 필요
RDA 인식	RDA의 특징 이해하기 어려움
	추상적이고, 실제 구현 사례 부족
	이용자 관점의 고려 바람직
	선거통제를 해야 하는 당위성 부각 현업 적용 시 어려움 예상
RDA 도입 장애 요인	RDA 개념 너무 어렵고 필요성 의문
	정리 업무의 인력 부족 및 예산 확보 어려움
	선거 업무 도입 어려움
	가중될 업무에 비해 기존 시스템 개선이 명확하지 않음
	RDA에 대한 안내, 홍보, 교육 부족 기존 데이터에 대한 소급 변환 어려움
RDA 도입 방안	RDA 인식 확산 및 교육
	하이브리드 레코드 적용 지점 마련
	RDA 도입한다면, 시범 기관 운영 바람직
	RDA 도입의 유용성 검증 및 구현을 위해 업체와 조율
	소급 변환보다는 특정 시점 변경 바람직 성공 사례 발굴 및 문제 공유를 위한 온라인 채널 마련 국가전자 DB 구축·활용 및 국가적 예산 및 시스템 지원

4.1.2 서지 유틸리티 사용 비용 부담

연구참여자들은 서양서 반입 시 사용하는 서지 유틸리티 사용에 따른 비용이 부담되어 일부 옵션을 구독하지 않고 있거나 무료 혜택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무료 혜택 기간이 끝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그런데 유럽권의 자료 정리 시 ○○○ 중 ○○을 구독하고 있지 않아 불편함이 있어요. (7번 연구 참여자)

○○○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이제 돈 내고 해야 하는데, 우리 학교는 무료 혜택을 받아서 계속 무료로 사용 중이긴 한데, 없어지게 된다면 ... 어려움이 또 생기겠죠. (3번 연구참여자)

4.1.3 반입 받을 양질의 레코드 부족

연구참여자는 서양서 서지레코드 반입과 관련하여 반입 받을 레코드의 양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반입 받을 양질의 레코드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영어 자료 이외의 서지레코드와 신생 출판사에서 발행한 자료의 서지레코드가 부족하

다고 언급하였다.

제대로 된 목록만 있으면 반입이라도 되면 제일 좋고요. 독일어, 불어, 비도서 같은 거라든지, 하여튼 어디서든 반입될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어느 정도 조금 뭐 달라도 ... 그런데 종합목록 데이터가 ... 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서 ... 누군가가 제대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잘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너무 안 돼 있으니까 ... (1번 연구참여자)

4.1.4 검색엔진과 비교해 목록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편목 업무의 비중 축소

연구참여자들은 목록이 소장정보 제공 기능을 제외하면 목록정보 자체의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예전보다 편목 업무 중요도나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양질의 서지레코드를 구축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도서관에서는 서지정보를 다 입력하고 일단 인건비 같은 비용도 많이 소요돼요, 그렇다고 실제 다른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보다는 많은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전통적으로 지속하여 온 소장정보 제공을 제외한 실제 목록정보 자체를 보면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2번 연구참여자)

저희도 편목 인원도 많이 줄고, 비중도 감소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편목을 외주 주는 대학들이 많으므로 이런 부분의 중요도나 비중이 축소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

편목도 대학도서관의 일부 업무이기도 하고, 대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 게 따로 있어서, 편목의 새로운 표준이나 경향에 집중하기보다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관심을 두지 않아도 크게 영향이 없는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4번 연구참여자)

그런데 그렇게 잘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 (1번 연구참여자)

4.1.5 인쇄자료가 있는 한 편목 업무 필요

연구참여자들은 인쇄자료가 있는 한 편목 업무는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도서관과 검색엔진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언급하였다.

검색엔진의 발달로 서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목록 업무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가 되고 검색엔진이 발전하면 목록 업무가 필요 없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6번 연구참여자)

도서관과 검색엔진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해요. (7번 연구참여자)

4.2 RDA 인식

4.2.1 RDA의 특징 이해하기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RDA의 이용자 과업, 구조,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 내용유형 등 RDA 특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RDA 구조 너무 어려워요. ... 336, 337, 338도 들어는 봤는데 보면, 이게 그 깊이 있게 자세하게 그걸 풀이해 주고, 그거를 알려주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어렵고요. 또 뭔지를 들여다보고 있을 시간도 없고요. (1번 연구참여자)

목적은 이렇고 어떻다는 거를 읽긴 했지만, 지금 까지는 새로운 표준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고 생소한 부분이 있고요. (4번 연구참여자)

4.2.2 추상적이고, 실제 구현 사례 부족

연구참여자들은 RDA 특징이 이론적으로 중요하지만, 너무 철학적이고 이론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RDA의 실제 구현 사례가 부족하다고 강조하였다.

RDA에서 정의한 이용자 과업이 표현만 다를 뿐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목록의 기능과 목적이라는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일반 사서들이 RDA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한, 이러한 이론적 배경이 목록규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RDA에서 정의한 이용자 과업이 한마디로 너무 철학적이고 이론적이에요. (5번 연구참여자)

FRBR 개념이 나온 이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 즈음에 국내에서도 그때 FRBR 언급이 많이 되면서 도서관 목록과 검색은 이 방향으로 간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FRBR이 현재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느냐를 보면 아직

불안정한 것 같아요. (2번 연구참여자)

4.2.3 이용자 관점의 고려 바람직

연구참여자들은 RDA가 이용자 관점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연관 자료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기존의 AACR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옮길 때 일반 이용자들이 알 수 없는 축약용어를 사용하고 메인 엔트리 개념이 있어서 이게 메인이 되고,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 자료에 기재된 그대로 모든 저자가 됐든 번역자가 됐든 모두 접근점을 제공하는 개념 자체는 이용자 검색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4번 연구참여자)

일단 이제는 그 기본적인 목록 기능이 그 검색어 입력을 통해서 탐색 같은 것은 기본으로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주제나 저자나, 연관 데이터를 집중함으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RDA의 이런 측면이 국내 목록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요. (3번 연구참여자)

4.2.4 선거통제를 해야 하는 당위성 부각

연구참여자들은 RDA가 선거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국내 목록도 선거통제 업무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부각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중요함에도 시행하지 못했던 선거통제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더욱 부각되었다고 생각해요. (5번 연구참여자)

RDA는 전거데이터 구축을 기본으로 하므로...
(6번 연구참여자)

실질적으로 FRBR을 만약에 제대로 구현하겠
다면 FRAD 등의 전거 통제가 구축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2번 연구참여자)

4.2.5 현업 적용 시 어려움 예상

연구참여자들은 RDA가 이상적인 이론이지
만, 국내 적용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연관 정보들을 다 작성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집중을 위한 링크가 전거통제를 통해서 다 저희
가 작성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 통합 전거가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전거부터 만들어야 하
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전거데이터는 예전보다
더 자세히 생성해야 정확한 FRBR 목록이 구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작의 개념
인 130이나 240 혹은 저자와 저작을 동시에 전거
로 생성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 국내는 지금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 혹시 한 기관만 RDA
로 목록을 하겠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닐
까요. 전거부터 모든 자료의 표현형, 구현형의
목록 데이터를 일일이 만들어야 하니 ... (2번
연구참여자)

4.3 RDA 도입 장애 요인

4.3.1 RDA 개념이 너무 어렵고, 필요성 의문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RDA 도입
장애 요인은 RDA 개념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RDA에 기반한 시스템의 이
용도를 담보하기 어렵고, 이용자들이 과연 도
서관 목록에 그 부분까지 원하는지에 대한 의
구심이 든다고 언급하였다.

너무 어렵지 않나요? RDA에 대한 개념도 그렇
고, 제반 환경도 그렇고 ... (2번 연구참여자)

RDA 자체가 어렵고, 새로 배우기도 어려워요.
(1번 연구참여자)

이 변화를 수용할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아요, 물론
RDA의 기능 자체는 당연히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용자가 더 많이 검색
하고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4번 연구참여자)

일부 사서는 약간 의구심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용자가 자료를 검색하는데 일단
서명에 있는 키워드나 서명 필드랑 또 그 주제어
에 입력하는 그걸 가지고 식별하고 탐색하지,
굳이 어떤 특정한 저자라든지, 뭐 주제 키워드에
다양한 서지 목록을 보는 것은 이용자들이 사용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기능으로
도 충분하지 않으나 ... (3번 연구참여자)

4.3.2 정리 업무의 인력 부족 및 예산 확보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RDA 도입 어려움으로 도서
관 정리 업무의 인력 부족과 추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대학에 정리 인원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외주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 (2번 연구참여자)

인력적 한계 및 시스템적으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5번 연구참여자)

그것을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정리 사서가 3명이에요, 우리 학교는 3명 가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DB 구축하고, ○○○ 업무하고, 하반기 이후로 ○○○도 저희 업무로 추가될 것 같아요. ... RDA 도입하기가 ...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그 시간이 없지 않을까 ... (3번 연구참여자)

RDA를 적용한 서지 MARC과 전거 MARC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6번 연구참여자)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충원에 대해 본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8번 연구참여자)

4.3.3 전거 업무 도입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RDA 도입의 핵심은 전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전거 업무 도입은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전거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도 완벽한 전거레코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에서 전반적인 전거 구축이나 연관 저록에 대한 링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개의 목록만 저작, 표현형, 구현형 등을 작성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힘든 내용인 것

같아요. (2번 연구참여자)

전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거를 하더라도, 하는 입장에서 그게 또 완벽할 수는 없더라고요. 한국 인명은 너무 동명이인이 많아요. ... 서양 인명 같은 경우, 이름의 표목을 다운로드 받아 보면 그게 또 중구난방으로 인명의 생몰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몰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일일이 어떻게 따져보고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새로 또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 또 사람의 표준형식이랄까, 그 표기 형식이 달라져요. (1번 연구참여자)

4.3.4 가중될 업무에 비해 기존 시스템 개선이 명확하지 않음

연구참여자들은 RDA를 도입했을 때 기존 검색시스템에 비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사서들이 새롭게 입력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현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RDA 개념은 이상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다 검색해서 나오는데 꼭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해야 하나 ... AACR 보다 발전적이긴 하지만 발전적이고 뭔가 이렇게 진화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걸 언제 어떻게 적용하고 앉아있어요. (1번 연구참여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목록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접근점이라든지, 저작 집중 개념이라든지, 이게 목록에서 저작 관계를 기술하는 태그가 있지만,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목록 편목에서 이런

것을 서술해주는 것도 있지만, LAS 기능 구현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때 목록에서 태그로 구현하는 기술 외에도 LAS의 부가 기능을 통해 저작 연관관계가 링크되어 홈페이지 검색화면에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 그런 부분은 좀 더 편한 방법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다 기술(description)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4번 연구참여자)

홈페이지에서 구현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많이 입력해도, 이용자 단에서, 홈페이지상에서 RDA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8번 연구참여자)

4.3.5 RDA에 대한 안내, 홍보, 교육 부족
연구참여자들은 그동안 RDA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RDA 표준 관련해서도 2000년대 중반 심포지엄 자료도 있고 안내도 있었지만, 최근은 아니더라고요. (4번 연구참여자)

국내에서는 일단 RDA에 대한 인식이, FRBR, FRAD 포함 실질적인 내용 파악이라 그래야 하나요 ... 그것들이 지금 많이 공유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2번 연구참여자)

4.3.6 기존 데이터에 대한 소급 변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RDA 도입 시 기존 데이터에 대한 소급 변환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가장 어려운 점은 기존 데이터에 대한 소급작업

과 인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6번 연구참여자)

데이터 변환이 좀 필요하긴 할 텐데, 실제로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336, 337, 338로 기존 데이터를 전부 다 변환하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번 연구참여자)

4.4 RDA 도입 방안

4.4.1 RDA 인식 확산 및 교육

연구참여자들은 RDA 인식 확산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양서 목록 규칙을 RDA로 적용하고 싶지만, 아직 RDA에 대해 충분한 스티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RDA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6번 연구참여자)

충분한 인적·예산 지원 및 사서 교육정책이 필요해요. (7번 연구참여자)

다들 생소하므로 일단은 많이 알려야 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 이런 표준이라든지, 그 편목 관련한 거는 저희가 학부 때 또 배우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명확한 표준이 있으므로 다들 알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련 교육이 필요해요. ... 국중이든지, KERIS든지, 관련된 기관 이런 데서 다 같이 공감대가 되고 필요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되고 이렇게 같이 좀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4번 연구참여자)

일반 사서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의 안내 책자를 배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연구참여자)

4.4.2 하이브리드 레코드 적용 지침 마련

연구참여자들은 RDA 도입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 레코드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레코드와 관련된 내용 중 연구참여자들은 245 태그의 모든 책임 사항을 기술하는 것과 역할어를 기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이브리드 레코드로 작성할 수 있다면 RDA를 적용하는 데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6번 연구참여자)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핵심 요소 외 기타 요소는 각 기관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듯해요. 가령 336, 337, 338 필드 추가는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약어의 완전형 사용은 내용 파악에 크게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도록 해도 좋을 것 같아요. (5번 연구참여자)

저자가 너무 많으면 이것도 어렵고 ... 대체로 전체를 할 수는 있죠. 이걸 700으로 내냐 안 내냐는 각자 선택할 수 있다면, 700으로 안 내고 싶거든요. 저자가 너무 많을 때 20명인데 700을 전거 ... 미흡한 전거지만 전거를 작성하는 입장에서 그 20명을 다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거든요. (1번 연구참여자)

그 기증자료 연구원들, 기관의 연구소들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곧 그 책임 연구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분야에서 계속 연구하고 저술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요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을 하고, 그것을 전거데이터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3번 연구참여자)

4.4.3 RDA 도입한다면, 시범 기관 운영 바람직

연구참여자들은 RDA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면서 만약 RDA를 도입한다면 시범 기관을 선정하고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도입하게 되면 테스트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7번 연구참여자)

통합 MARC 변환과 같이 시범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5번 연구참여자)

일단 테스트가 된다면, 장서가 많은 전문이나 대학이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 세미나나 공청회 전에 시연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 그걸 좀 사용해 본 다음에 세미나나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3번 연구참여자)

4.4.4 RDA 도입의 유용성 검증 및 구현을 위해 업체와 조율

연구참여자들은 RDA 도입이 편목 업무 입장에서 과연 유용한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RDA 구현을 위해 시스템 제공 업체와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사서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 예를 들어 웹 기술 활용 및 RDA 편집기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기존 목록작업과 비교했을 때 경제성, 수월성 등이 필요해요. (7번 연구참여자)

편목 하는 데이터가 이용자 검색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게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느냐를 보여줘야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시스템에 익숙하기에 도입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 일단은 시스템이 변경돼야 하겠지만 시스템 변경하려면 대부분 대학도서관이 LAS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업체에도 안내가 되고, 기존 데이터랑 소급이 돼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 RDA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 (4번 연구참여자)

제가 RDA가 도입된 MARC 사례를 보면서 어떠한 필드들이 있는지 보긴 보지만, 이제 그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아직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구축 화면과 검색화면 그것을 좀 사서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 (3번 연구참여자)

국중에서 RDA를 적용한다면, 국중에서 이용자들이 시스템적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실제로 느끼도록 시스템 구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적인 변화와 이점을 보여주면, 사서도 그러한 근거를 토대로 교수나 연구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므로 도서관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편목을 지원하는 국내 시스템 업체를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8번 연구참여자)

4.4.5 소급 변환보다는 특정 시점 변경 바람직
연구참여자들은 RDA 도입 시 소급 변환과 관련하여 소급 변환의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일관적인 소급 변환보다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저자와 저작을 다 연결해 주는 소급 데이터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좀 드네요. 그러나 RDA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단계라고 생각돼요. (2번 연구참여자)

새로운 목록규칙 적용을 위해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추가하거나 특정 시점부터 변경하는 것이 좋을듯해요. 특히 소급 데이터 변환은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5번 연구참여자)

4.4.6 성공 사례 발굴 및 문제 공유를 위한 온라인 채널 마련

연구참여자들은 RDA 관련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시범 기관의 테스트 과정이나 문제점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연구참여자)

도서관에는 행정적인 일이 많거든요, 정리 업무는

그러랑 별개로 좀 연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업무
이므로,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 꼭 도입해
야 하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본 사람이
없으면 일단 대충 그냥 간단하게 도입하고, 잘
도입하려면 그것만 들여다보고서 어떻게 할지 연
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 (1번 연구참여자)

일단 RDA로 구축된 목록을 똑같이 종합목록에
업로드할 것 같은데, 그런 사례 배포를 먼저 구축
한 도서관에서 각 대학에 좀 뿌려줬으면 좋겠어
요. 공문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선진화 사례
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슈페이퍼 형식으로
국가기록원 같은 데서도 이제 그 기록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의 이슈 같은 걸 그 분기별로 배포
하는 것처럼 ... 그런 식으로 목록도 지금 아직
우리가 전부 다 공유된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
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3번
연구참여자)

4.4.7 국가전자 DB 구축·활용 및 국가적 예산과 시스템 지원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전자 DB를 구축하고,
단위도서관이 국가전자 DB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한, 연구참여자들은 RDA 도입을 위한 국가적
예산과 시스템 지원,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전체 국가 전자 DB 구축 시스템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 시스템에서 국가 전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RDA를 적용할 수 있도
록 제반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번 연구참
여자)

누군가가 국중이든 국회든 잘 만들어서 데이터
를 그냥 뿌려주고 이걸 쓰라고 하면 쓰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신규로 한다고 하면, 해오던
자락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 지금 현실
적으로 어려워요,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
분들을 누가 해 주지 않거나 예산이 없으면 어려
워요. (1번 연구참여자)

OCLC 서지를 반입해서 업로드할 때, 기존
MARC21에서는 260 출판사항이 필수 태그인
데, 그때 아마 OCLC 반입을 했던 게 RDA를
반영한 데이터였으나 봐요. ... 그때 이제 제가
실수로 260을 지우고 264만 남겨뒀던 것 같아요.
이제 공동 목록 쪽에서는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
요. 필수 태그가 빠졌다고 ... 아직은 대학도서관
은 통제하는 상위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쪽에
서도 이거를 다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 같긴 한데 ... 이런 식으로 뭔가 적용할
때 그쪽 기관에서 먼저 하고 탐다운 방식으로
알려주셔야 수용자 입장에서 좀 편할 것 같아요.
... 툭잇 이게 뭐 구독 식으로 돈을 내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또 비용이 든다면 기관에서는 문
제가 생길 것 같아요. (4번 연구참여자)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많은 대학의 경영진
과 실무자 선에서 반발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돼
요. 또한, 이러한 변화에 있어 동참하지 않는
기관도 많을 것으로 예상해요. 이는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특히 학령인구의 극단적인 감소로 인한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위기에서 현실적으
로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경영진이 최후순위로
미루어 둘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국가적인

예산 및 시스템 지원책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로 보여요. (7번 연구참여자)

5. 논의 및 제언

국내 도서관 RDA 도입 현황과 과정을 요약하면, 국내 도서관은 2015년부터 서양서에 RDA를 도입하였고, 일본서, 중국서 적용 여부는 도서관마다 달랐고, 한 도서관은 RDA를 부분 도입하였다. 또한, 국내 도서관은 RDA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번역, 심포지엄, 자문회의, 담당 직원회의를 진행하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RDA를 도입한 도서관의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어려운 점은 RDA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여 개념이나 용어가 어려운 점, RDA를 도입하여 추가 기술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증가했으나, 이용자 제공 서지 시스템에 변화는 없었다는 점, 도입 도서관의 수가 적다는 점이다. 국내 도서관은 RDA 도입 시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지 않았고, 향후 지침, 사례, 연구, 동향 등의 공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RDA 도입을 위한 도서관의 여력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였고, 국내에서는 RDA의 미래가 부정적일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내 도서관은 RDA 도입으로 인쇄자료 이외의 편목 시 다양한 자료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상세 정보 제공, 접근점 확대가 가능하고, RDA는 계속 발전하고 도입하는 나라들이 계속 증가하므로 국제 목록 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FRBR 적용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대학도서관 사서의 RDA에 대한 인식과 요

구를 편목 업무의 변화와 RDA 인식, 도입 장애 요인, 도입 방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목 업무의 변화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RDA 도입 전이지만 RDA를 적용한 필드를 삭제하지 않아서 AACR2와 RDA가 공존하는 서지레코드 환경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고, 서지 유틸리티 사용의 비용이 부담되고, 반입 받을 양질의 레코드가 부족하고, 검색엔진과 비교해 목록은 효용성이 떨어지고 편목 업무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참여자는 인쇄자료가 있는 한 편목 업무는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결과는 해외 주요 도서관이 이미 RDA 서지레코드를 생산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며, 양질의 서지레코드는 여전히 부족하고, 비용의 문제, 업무 축소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RDA 인식과 RDA 도입 장애 요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RDA는 이용자 관점의 고려는 바람직하고, 선거통제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고, 이론적으로 중요하지만,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구현 사례가 부족하고, 현업 적용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RDA 도입 장애 요인은 RDA 개념이 너무 어렵고, RDA 필요성이 의문이고, 도서관 정리 업무의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 확보가 어렵고, 어떤 면에서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선거 업무의 도입이 어렵고, RDA에 대한 안내와 홍보, 교육이 부족하고, 기존 데이터에 대한 소급 변환이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결과 중 RDA 개념이 어렵다고 인식한

결과는 목록 사서는 새로운 RDA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고, FRBR 제1집단 개체, 특히 저작, 표현형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Cronin (2011)의 연구, 터키 도서관 사서의 연구대상 절반 이상이 RDA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Atilgan과 Ozel, Chakmak(2015)의 연구, FRBR이 1998년에 시작되었지만 모든 목록 작성자가 FRBR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된 모든 문서를 읽을 기회가 없었음을 지적한 Mansor와 Ramdzan(2014)의 연구, RDA 자원유형 용어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이미화(2011b)의 연구,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RDA 관련 원리나 개념에 친숙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이성숙(2022)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 사서가 RDA를 익숙해지는데 방해되는 주요 이유는 RDA 툴킷에 대한 액세스가 부족하다는 Welsh와 Carty, Williams(2012)의 연구, RDA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 교육 비용과 RDA 툴킷 구독 비용을 언급한 Mansor와 Ramdzan (2014)의 연구, 나이지리아 사서의 RDA 인식 연구 결과 예산상의 어려움을 언급한 Aboyade와 Eluwole(2018)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RDA 기반 서지 검색시스템을 이용자가 원할지 모른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스템보다 RDA 기반 서지 검색시스템이 검색 유익성, 검색 효율성, 검색 만족도, 검색기 능력도, 검색 편리성 정도에서 이용자에게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연구 결과(도슬기, 2014)와는 다른 것으로, 이는 관련 연구의 부족과 이런 연구 결과가 현장 사서에게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RDA 도입 방안은 우선 RDA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RDA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RDA 도입 시 하이브리드 레코드 적용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RDA를 도입한다면 시범 기관 운영이 바람직하며, RDA 도입의 유용성을 검증해야 하고, 구현을 위해 업체와 조율이 필요하며, 소급 변환보다는 특정 시점 변경이 바람직하며, 성공 사례 발굴 및 문제 공유를 위한 온라인 채널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가전거 DB를 구축·활용하고, 국가적 예산 및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결과는 목록 업무에 변화를 도입하면 저항과 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RDA 사용에 대한 목록 사서의 교육은 RDA 도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한 Mansor와 Ramdzan(2014)의 결과, RDA 도입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Yuji와 Park (2013)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채널 마련과 관련하여 RDA에 대한 캐나다 사서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회원에게 RDA 개발 및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CCC(Canadian Committee on Cataloging)의 사례(Oliver, 2009)와 협업의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강조한 Ducheve와 Pennington(2019)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RDA 도입 인식에 관한 면담 결과, 국내 도서관 사서들은 RDA 도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전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내 도서관이 RDA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위도서관마다 전거 업무를 수행하고, RDA도 도입하는 이

중고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RDA를 도입한 도서관은 RDA 도입이 RDA 도입으로 인쇄자료 이외의 편목 시 다양한 자료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접근점 확대가 가능하고, RDA는 계속 발전하고 도입하는 나라들이 계속 증가하므로 국제 목록 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면담에 참여한 국내 도서관 사서들은 RDA를 적용한 서지레코드를 여러 번 봐서 익숙하다고 언급하면서, RDA가 추구하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내 도서관은 국내 목록 상황에 적합한 점진적인 RDA 도입 여부 검증과 도입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RDA 도입 현황과 도입에 대한 인식과 지원 요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도서관 RDA 도입을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RDA 도입 여부 검증과 방안 마련을 위한 큰 방향은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중앙 관리 역할을 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도하되, 주요 추진 방안은 정리 사서 맞춤형 교육 제공,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국가전자공동활용시스템의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단위도서관 지원, RDA의 LAS 적용 방안 모색과 시범 기관의 성과 모델 수립, 한국형 하이브리드 서지레코드 운영 지침 마련, 차세대 목록을 위한 웹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RDA 인식 개선을 위한 안내와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되, 국내 정리 사서 맞춤형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면담 결과 연구참여자는 336, 337, 338 등 RDA를 적용한 서지레코드를 자주 봤고, 반입 시 336, 337, 338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지만, 그 의미와 활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RDA의 특징이나 개념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였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RDA 도입 장애 요인으로 RDA의 안내와 홍보, 교육의 부족을 언급하였다. 이런 결과는 국내에서 개최되었던 심포지엄, 전국도서관대회 발표를 통한 홍보 및 교육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정리 사서들의 시간을 절약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리 사서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의 안내 책자를 배부할 필요가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단위도서관 사서들이 필요할 때 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에서 사용 중인 내부 직원용 RDA 번역본(2014년 업데이트본)을 기반으로 RDA 공식 버전을 번역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온라인사서교육시스템을 활용한 RDA 관련 동영상 교육 자료 상시 제공 및 교육시간 인증 등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는 현재 발행하고 있는 '서지표준동향'을 확대하여 새로운 목록 규칙과 관련된 RDA 관련 이슈페이퍼를 발행할 필요가 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종합목록 운영위원 중심으로 RDA 도입 TF팀을 구성하고, KERIS 사서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성공 사례 공유 및 문제 공유를 위한 온라인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운영 중인 국가

전자공동활용시스템에 많은 대학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위도서관이 전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면담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RDA가 전자통제의 당위성을 부각했지만, 현업에 전자 업무의 도입은 어렵고, 정리 업무 인력은 부족하며, RDA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RDA는 전자 업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전자 업무를 거의 하지 않으므로 국가 주도적 접근과 단위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규칙을 공부하여 단위도서관에 적용할만한 인적, 예산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전자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동명이인의 식별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선거데이터 공동활용시스템을 지속해서 확대 유지하며, 단위도서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 업무를 하는 도서관도 동명이인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에 ISNI 등 식별체계의 도입 및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RDA를 LAS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범 기관의 성과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면담 조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RDA가 이론적으로 중요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실제 구현한 사례는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RDA에서 이용자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용자들이 RDA에서의 관계성을 얼마나

활용할지는 명확지 않다고 언급하였고, RDA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RDA 도입 시 이전 시스템과 비교해서 개선되는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하고, 사서들이 새롭게 기술하는 서지 정보(예: 336, 337, 338 등)가 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RDA를 도입한다면 시범 기관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RDA 유용성이 검증되어야만 단위도서관에서는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단위도서관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RDA 적용 방안이나 유용성을 검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RDA의 유용성과 적용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RDA 적용에 관한 성공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고, 한국적 편목 상황에서도 RDA가 유용한지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도서관은 시범 기관의 운영을 통해 RDA와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선거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단위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관리시스템(TULIP, SOLARS)을 위한 전자 활용 기능을 신규로 개발한 것을 참고하여,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단위도서관 LAS에 RDA의 적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RDA 툴킷 사용 비용의 부담을 어려움으로 언급했고, 향후 RDA 도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독 비용 해결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한국형 RDA 도입을 위한 하이브리드 서지

레코드 구축 지침·운영 방안 및 국내 RDA 도입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면담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하이브리드 레코드의 현실적 가능성이 크지만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예컨대 국외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구축 지침 중 245 책임 표시 사항을 모두 기술하는 것, 역할어를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적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서지레코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이브리드 레코드 구축 시 수작업과 자동 변환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국내 도서관은 RDA 도입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도서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단위도서관은 차세대 목록을 위한 웹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서의 서지정보 직접 입력의 피로도를 줄이면서, 목록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면담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RDA 도입의 유용성이 검증되어 도입되더라도 RDA를 현업에 적용할 때, 단위도서관에서 최소화의 노력을 들여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시스템에서도 검색 및 연관 검색이 어느 정도 달성된다고 언급하면서, 사서가 RDA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은 정보를 일일이 기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이런 면담 결과를 통해 볼 때, 국제목록원칙 규범에서 정의되었고, RDA에서도 정의된 이용자 과업의 관점에서 현재 도서관 목록의 기능과 목적을 국내 도서관이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사서가 RDA에 기

반하여 새롭게 입력해야 하는 서지정보와 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계는 RDA 도입 방안 고려 시 기술 목록을 간소화할 방안을 고려하고, 남은 여력은 전거 업무, 주제 분석을 통한 주제명 부여, 자원의 관계 식별과 같은 지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서관을 위한 예산 투자, 시스템 지원, 인력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RDA가 발표된 이후, 국외 도서관계는 RDA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와 테스트를 통해 도입 여부와 효과적인 도입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RDA의 도서관 도입 시 사서들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되며, 자국의 목록 상황에 기반해서 현실적인 RDA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RDA 도입 현황과 RDA 도입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도서관 중 RDA를 도입한 2개 도서관의 도입 현황을 분석하고, 대학도서관 사서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RDA 도입 관련 서술형 답변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RDA 도입 현황 분석 결과, 국내 도서관은 2015년에 서양서 편목에 RDA를 도입하였고, 도입 시 어려웠던 점은 RDA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여 개념이나 용어가 어려웠고, RDA 도입으로 인한 추가 기술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증가했지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지시스템

의 변화는 없었고, 도입 도서관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면담 조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RDA의 개념은 매우 어렵고 추상적이며, RDA를 적용한 구현 사례들이 적고, 단위도서관의 인력과 예산 여건상 RDA 도입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RDA 도입 방안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우선 RDA 인식을 개선하고, RDA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RDA 도입시 하이브리드 레코드의 적용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RDA를 도입한다면 시범 기관 운영이 바람직하고, RDA 도입의 유용성을 검증해야 하고, 구현을 위해 업체와 조율이 필요하고, 소급 변환보다는 특정 시점 변경이 바람직하고, 성공 사례 공유 및 문제 공유를 위한 온라인 채널을 마련해야 하고, 국가전자 DB를 구축·활용하고, 국가적 예산 및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대학 도서관 RDA 도입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RDA 도입 여부와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큰 방향은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

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중앙 통제 역할을 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도하되, 주요 추진 방안은 정리 사서 맞춤형 교육 제공,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국가전자공동활용시스템의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단위도서관 지원, RDA의 LAS 적용 방안 모색과 시범 기관의 성과 모델 수립, 한국형 하이브리드 서지레코드 운영 지침 마련, 차세대 목록을 위한 정보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서관을 위한 예산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 대해 제안하면, 첫째 이 연구는 RDA 도입에 대한 4년제 대학도서관 사서 8명의 인식을 면담으로 조사한 연구이므로, 연구 대상의 범위를 달리하고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 제안된 RDA 도입 방안에 대한 사서의 의견은 조사되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목록의 목적과 관련된 OPAC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현 (2013).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123-143.
- 김정현 (2017). RDA의 이론과 실제. 대구: 태일사.
- 도슬기 (2014). RDA 기반 서지검색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백지원 (2016). RDA 도입을 위한 정보조직 교육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403-428.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3.403>
- 이미화 (2010). MARC 데이터의 RDA 저작 및 표현형 요소 분석을 통한 한국목록규칙 및 KORMARC

- 의 고려사항.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51-272.
- 이미화. (2011a).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 변화에 따른 KCR4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1), 23-42.
- 이미화. (2011b). RDA 자원유형의 KCR4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3), 103-121.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3.103>
- 이미화. (2013). ISBD 및 RDA 내용유형 및 매체유형 기술 테스트를 통한 KCR4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119-137.
- 이미화. (2014). 미국 대학도서관의 RDA 적용에 관한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77-97.
- 이미화. (2015). 국내 하이브리드 서지레코드 생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203-220.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4.203>
- 이미화. (2017). RDA 자원유형 디스플레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1), 25-4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1.025>
- 이미화. (2018). 집합물의 FRBR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RDA, KCR4 목록규칙 기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27-46.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1.027>
- 이미화. (2019). 2019 개정 RDA 특징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97-116.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9.97>
- 이성숙. (2022). RDA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455-47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1.455>
- 조재인. (2009). RDA 구현 시나리오와 서지 제어의 장래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85-105.
- Aboyade, W. A. & Eluwole, O. A. (2018). Implementation of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RDA) in Nigeria: awareness, cataloguers' perception and challenges. *Journal of Applied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1(2), 79-86.
- Atilgan, D., Ozel, N., & Chakmak, T. (2015). RDA in turkey: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n implementation. *Ital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6(2), 163-179.
- Cronin, C. (2011). From testing to implementation: managing full-scale RDA adoption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9(7/8), 626-646.
<https://doi.org/10.1080/01639374.2011.616263>
- Ducheva D. P. & Pennington D. R. (2019).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in europe: implementations and perception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1(2), 387-402. <https://doi.org/10.1177/0961000617709060>
- Haliru, Z. A., Sokari, V., & Bello, S. O. (2016). Perceptions of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RDA): a survey of librarians in university libraries in northwestern nigeria. *The Nigerian*

- Cataloguer, 3, 28-41.
- Mansor, Y. & Ramdzan, E. (2014). RDA perceptions among Malaysian catalogers. *Library Review*, 63(3), 176-188. <https://doi.org/10.1108/LR-06-2013-0085>
- OCLC (2005). Perception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resources. Available: <http://www.oclc.org/reports/pdfs>
- Oliver, C. (2009). FRBR and RDA: advances in resource description for multiple format resources. Available: <http://www.collectionscanada.gc.ca/obj/005002/f2/005002-2200-e.pdf>
- Park, J. R. & Yuji, T. (2015). RDA implementation and training issues across United States academic libraries: An in-depth e-mail interview stud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3), 252-266.
- RDA Steering Committee (2022). Overview. Available: <http://www.rda-rsc.org/>
-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Available: <https://www.loc.gov/aba/rda/source/rdatesting-finalreport-20june2011.pdf>
- Welsh, A., Carty, C., & Williams, H. (2012). Mind the [trans-atlantic] gap, please: awareness and training needs of UK catalogers. *Journal of Library Metadata*, 12:2-3, 242-263, <https://doi.org/10.1080/19386389.2012.699854>
- Yuji, T. & Park, J. R. (2013). RDA: resource description & access - a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4(4), 651-66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Ji-Won (2016).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DA in LIS cataloging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403-428.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3.403>
- Cho, Jane (2009). A study for RDA implementation scenarios and future bibliographic contro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85-105.
- Do, Seul-Ki (2014). A Study on user evaluation of an RDA-based bibliography retrieval system.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 Kim, J. H. (2013).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Korean cataloguing rules. *Journal*

-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123-143.
- Kim, J. H. (2017). RDA Theory and Practice. Daegu: Taelisa.
- Lee, Mi-Hwa (2010). A study on suggestion for KCR and KORMARC by analyzing work and expression element of RDA in MAR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251-272.
- Lee, Mi-Hwa (2011a). A study on considerations in KCR4 through changes of cataloging rules from AACR2 to RD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1), 23-42.
- Lee, Mi-Hwa (2011b). A study on application of resource types of RDA to KCR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103-121.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3.103>
- Lee, Mi-Hwa (2013). A study on consideration in KCR4 through testing the description of content types and media types of ISBD and RD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119-137.
- Lee, Mi-Hwa (2014).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applying RDA in US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77-97.
- Lee, Mi-Hwa (2015). A study on the creation of hybrid bibliographic reco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4), 203-220.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4.203>
- Lee, Mi-Hwa (2017). A study on the plan for the display of RDA resource typ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1), 25-4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1.025>
- Lee, Mi-Hwa (2018). A study on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RDA & KCR4 cataloging rules for FRBRizing the aggregat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1), 27-46.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1.027>
- Lee, Mi-Hwa (2019). A study on analyzing the features of 2019 revised RD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3), 97-116.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9.97>
- Lee, Sung Sook (2022).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university librarians on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1), 455-47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1.455>

